



외가댁에서(4살)

소풍때(5학년)

운동회때(6학년)

소풍때(중2)

당진 순복음 교회의  
 담직한 언재옥 권사님  
 항상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성도님을 돌아보시며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대회 1등받음(고1)

가장행렬에서 김일성수령이 됨(고1)

덕수궁 돌담길에서(20살)

교회 교사시절 (22살)

언니 결혼식 날(24살)

제주도 신혼여행

<p>2017년도 표어          『지경을 넓히는 교회』          (대상 4:10)</p>	<p><b>NEW 순복음Life</b>          제10호</p>	<p>발행일 : 2017. 2 . 8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p>
---	---	---



## <이달의 신앙 간증>

### 이종희 집사

신앙 간증 부탁을 받고 나는 잠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주님을 체험한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수많은 일들 중 무엇을 증거 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가장 최근 일을 증거 할 것인가 아니면 그중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은 일을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이 자리를 빌어서 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후로 단 한순간도 내 옆을 떠나지 않으셨고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쪽~내가 주님 자녀의 길만을 걷도록 좌로 몰으시고 우로 미시고 딴 길로 새지 않도록 보듬으시며 철벽으로 보호해 주셔서 간증할 일을 이렇게 많이 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대략 19년 쯤 됐을까? 나는 김미진 집사님의 전도로 당진순복음교회를 오게 됐다. 나에게 우리 교회의 첫인상은 사랑으로 가득하여 따뜻하게 느껴졌다거나 가족 같은 분위기라 또 오고 싶다가나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난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을 믿고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무식해 보이기까지 했다. (=주여 ~) 그 이유는 그 당시 나는 하나님을 인정 하고는 있었으나 이미 성경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과 사고로 그릇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 상태가 이러하니 이런 내게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 듣는 말씀은 결코 꿀송이 같지도 달콤하지도 않았다.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였고 말씀을 듣고 고민에 빠지기 일쑤였다. 모르긴 해도 김집사님은 이런 나 때문에 아주 많이 답답해 하셨을 것이다. 집사님은 나에게 신앙의 멘토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이종희 자매를 교회에 정착시키려고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며 수고하고 참 많이 애써 주셨다. 그 덕분에 큰 이십년이 지난 지금 나는……. 당진순복음교회의 열매구역 구역장으로 사역중이다.^~ 하나님은 말씀에 의심이 많던 나를 깨우치시기 위해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민감한 영성도 허락해 주셨다. 잘할 땐 잘했다고 못하면 잘하라고 칭찬과 훈계를 바로바로 주셨고 이런 체험을 해가면서 정형화 되어버린 말씀에 관한 나의 딱딱한 관념들이 점점 녹아지기 시작했다.

김미진 집사님께서 어느 날 내게 가정예배를 제안하셨다. 처음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 하시는데 ‘저분은 교회 가면 교회예배 집에 오면 가정예배 어쩔 사람이 교회에 관련된 것만 하지? 사이비는 아니지만 약간 비슷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날 전도해준 사람이고 나 때문에 애쓰는 사람이니 하자는데 해보자는 생각으로 김 집사님과 더불어 가정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다.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기도제목을 내놓고 기도를 했다.



내 인생의 첫 경험이라 돌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어색하던지~~ 돌이 그려고 있다면 오글거리기가 그지없었고 특히 가장 참을 수 없는 순간은 기도시간이었다. 집사님이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면 민망 그 자체였고 어색한 마음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공부에서 주입식 또는 쇠뇌교육과 같은 것이니,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음부터 그 맥에서 혼자하시라고 말하고 싶다가도 너무 진지하시고 하도 열심히 기도하시니 사람의 도리로 차마 매몰차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친구가 없던 내게 집사님은 밥도 같이 먹자 해주고 때로는 달고 맛있는 시어머님 김치도 많이 주시고 과일도 주실 땐 항상 크고 좋은 농으로 주시고^^ 내게 이웃이란 이런 것임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셨기에 아마도 그 재미도 쏠쏠하여 가정예배라는 오글거리는 날마다의 행사를 그칠 수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집사님은 예배드리자고 내게 말씀하셨고 오후에 집사님 댁에 가서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집사님은 내게 기도제목을 물으셨고 나는 남편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 등 아주 평범한 기도제목을 내놓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그날따라 집사님은 내 기도를 힘주어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 좀 신경이 쓰였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왠지 뭔가 꺼림칙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그것도 남편이 일할 때의 안전을 놓고 말이다. 지금 같았으면 이런 경우 주님이 기도하라 하시는가 보다~ 라고 여기며 나도 주님을 큰소리로 불러가며 함께 기도했을 텐데 말이다. 어찌됐던 가정 예배를 마치고 난 집으로 돌아왔다. 오후 세시쯤 되었을까? 초인벨이 울렸다. 남편 회사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짜고짜 의료보험증을 달랬다. 그리고는 보험증을 가지고 이내 가버렸다. 남편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나는 그저 걱정만하며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밤에 남편이 돌아왔고 얼굴이 좋지 않아 보였다. 어디 다친 거냐고 신발도 벗기 전에 물었다. 남편은 내게 자초지종을 말해주었다. 고속도로 다리 공사하다가 다리에서 수 미터 아래로 떨어졌으며 그런데 돌짝 바로 앞에 떨어져서 머리로 멀쩡하고 팔다리도 운 좋게 멀쩡하다고 말했다. 기절했는데 직원들이 놀라서 보험 카드를 들고 병원에 데려갔단다.

아! 주님~~

그 순간 낮에 집사님의 기도 생각이 났다. 그리고 순간 아찔한 생각도 들었다.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김집사님이 남편 기도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날 전도해주지 않았더라면……. 남편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주님이 도와주신 것이 확실했다. 다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남편을 지켜주신 것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 사건 이후 나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사실이 믿겨지기 시작했다.

## 2017년 신년축복감사예배



### \* 직분임명식 \*



집사



권찰



교사



호산나 찬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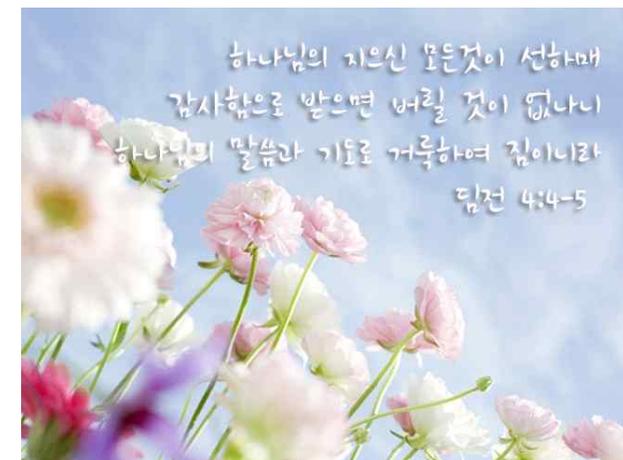
## <성도를 알아가는 질문>

### - 원재옥 권사 -

1. 고향은 어디신지요 그리고 졸업학교가 궁금해요.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경기도 구리예요. 그리고 학교는 토평 초등학교, 구리여자 중.고등학교 졸업하였습니다.
2. 결혼은 언제 하셨으며, 남편 분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요?  
1992년 직장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구요.^^ 신앙생활 같이 하기로 약속하고 결혼 했는데 아직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네요. 원인은 저 때문이겠죠? 각성하고 잘 하겠습니다.
3. 자신의 성격의 장단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장점은 적극적인 성격이 제게 있어서 모든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저의 단점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열심히 제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이들로 하여금 나를 색안경을 끼고 보게 만들어요.
4. 아이들이 어느덧 부모님을 걱정할 나이가 되었네요. 키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한다 여겨질 때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요.
5. 아이들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느끼는 건데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된다는 것을 가장 최근에 느낀 적은 언제 이신지요?  
이성교제요. 음..... 내 마음대로 정말 안되더라고요.^^
6. 큰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요? 살림 밀친 큰딸이 가게와 부모 그리고 동생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궁금해요 .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혜진이가 돈을 벌어서 자기 적금도 넣고, 이따금씩 동생들 용돈도 챙겨주더라고요. 그리고 2월에 대만 가족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우리 혜진이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경제적인 준비를 거의 다 해 주었습니다. 역시 큰딸은 집안의 대들보네요.
7. 권사님은 불고기를 참 잘 재시는걸로 유명한데요. 비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밖에 권사님의 숨씨 자랑 좀 해 주세요. 요리, 뜨개질 다 좋아요.  
비법은 콜라라고 생각합니다. 육질을 부드럽게 해주죠. 그리고 저는 김치만두도 잘해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김치 만두를 만들어서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싶습니다.

8. 어느덧 인생의 오십줄에 서 계신 지금 후회되는 삶의 시점이 있으신지요?  
그 시점의 나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재욱아 ~~ 믿음의 반려자를 만나라.**
9. 우리부부는 ( ) 하는 부부다.  
**우리부부는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부부입니다. (고장 난 수도꼭지, 차량 대여, 설비 고장 등등)**
10. 우리가족은 참 ( ) 하는 가족이다.  
**우리가족은 대화가 많은 가족이에요. 다 모이면 아주 시끄러워요.  
밤 늦게 까지도요.**
11. 권사님의 열정으로 이루고 싶은 주님의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만사가 주님의 일 아닐까요? 제 힘이 미약하지만 연약한 자들을 좀 더 폭넓게 도와주고 나누는 일에 열심하고 싶어요.**
12.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느끼신 점과 결심이 궁금합니다.  
**축복의 지경을 넓히려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난 가을 저희 가정 심방 말씀과 많이 연계가 되었던 말씀이었어요. 그 축복의 지경 꼭 제가 먼저 받고 싶습니다. 새벽기도와 성경 일독을 반드시 이루고 싶고요.  
제 말은 주의 사역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기억나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13. 권사님은 새 성도님을 맡고 계신데요. 이제 처음 교회를 알고 믿음생활을 시작한 30살 자매님이 계시다면 추천해주고 싶은 성구는 무엇인가요?  
**시편 23편 1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4. 당진순복음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제3의 성전을 꿈꾸는 데요. 권사님은 제 3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꼭 있어야한다 생각되는 공간이 있으신지요?  
**기도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5. 70살 원재욱 권사님이 궁금해요.  
**저는 천국에 있을 것 같아요.**
16. 다시 30대로 돌아가서 가족계획을 다시 세워주세요 그때도 넷이 좋으신지요?  
**딸은 대 만족이에요. 그러나 가슴으로 낳은 자녀도 갖고 싶어요.**

17. 성경 속 인물 중 자신과 그래도 가장 닮았다고 여겨지는 인물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정말 닮고 싶은 인물이 궁금해요.  
**닮은 인물은 베드로 같구요...다혈질적인 부분요^^  
지금은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닮고 싶은 인물은 다윗입니다.  
늘 무엇을 하든지 먼저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행하는 신앙을 본받겠습니다.**
18. 우린 늘 주님 오실 그 날을 준비하고 있지요. 권사님은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여 무슨 준비를 하시는지요?  
**깨어 있으려고 많이 노력해요.**
19. 변화되지 않는 삶은 죽은 삶이라 하십니다. 패턴을 바꾸라는 주일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내가 바꿔야할 패턴 또는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되시는지요?  
**모든 예배를 일찍 나와서 준비하는 생활의 변화입니다. 예전엔 40분 출발, 지금은 30분에 출발합니다.**
20. 지난 대선에서 권사님은 누구를 뽑으셨는지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돌을 던지고 싶지 않아요. 그저 더 기도 하지 못했던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 웃으십시오!



언제나 책임감이던가 의무감이 아닌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성도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집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바르바로 친은주, 구옥순 집사님 이십니다.

축구부, 학생, 청장년의 모든 행사와 여흥성경학교에 이르기까지 때와 장소를 불문하시고 두 팔 걷고 나서서 묵묵히 티 내지 않으시며 성실하게 주방을 책임지시는 집사님들이시죠!

이분들 덕분에 특히나 먹어도 먹어도 뒤돌아서면 또 배고픈 우리 학생과 청년들은 항상 배부르고 든든하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보배들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숲은 조력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집에 계신 부모님들~ 이분들의 헌신 알고 계시죠? 누군들 시간이 낮고 육신의 피곤함이 없기만 할까요!! 이분들 나이 때가 몹이 가장 아프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 가슴에 품고 이 힘든 일들을 소리 없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의 삶이 더욱 형통하시고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시고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낌없는 헌신과 선기를 다하시는 두 분 집사님! 올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이침으로 몽땅 다!! 충실히 이루어지시길 기도드립니다. ^^

## 2017년 헌 아 식



한 원 희



배 다 은



배 민 아



배 경 찬



이 주 희



성 민 준



-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겠습니다 -

# 성경숨은그림찾기



**성경숨은그림찾기**

엘리야가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일곱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왕상 18장 43-44)

(숨은그림: 오징어, 염소, 쥐, 컵, 비아커)

# \* 훈련 - essay.90 -



\*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디렇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얹는 것 같이 (신명기 32장 11절)

## <이 단 특 집>

### 여호와의 증인이란?

1.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함
2. 삼위일체 교리의 창작자는 사탄이라고 주장함
3.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며 천사장 미가엘로 최초의 피조물임
4. 배타주의 .... 다른 모든 교회는 멸절될 것임
5. 새 세계 번역 성경....이라는 자기들만의 번역본 사용

여호와의 증인은 19세기 미국의 재야 성서학자 찰스 테이즈 러셀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성립된 반 삼위일체론 계열의 기독교 교파이다. 이들은 삼위일체론과 영혼 불멸, 지옥불 사상은 성서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교의 혼합된 교리라고 보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여호와의 증인은 기독교의 다른 교파들과 구분되며 기성 교파에서 파생된 분파가 아니라 1세기의 초기 그리스도교를 재확립하였다고 주장한다. 정치 활동은 하지 않으며 모든 나라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성직 계급과 십일조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교인 수는 전 세계 240개국에 822만여 명에 달하며 대한민국에는 100,500여 명의 신자들과 1,358개의 회중이 있다.

하지만 이쪽에서는 매주 종교 집회에 참석하고 매달 일정한 시간 이상을 전도해야만 정규 신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 및 예비 여호와의 증인까지 포함하면 실질적 신도의 수는 훨씬 더 많다. (여호와의 증인은 일명 '나이롱 교인' 라고 불린다.) 보통 사람 수를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좀 의외인 부분이다. 이 때문에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전도를 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러나 요즘 문을 두드리며 성경이나 교회에 대해 얘기하거나 종교에 대한 설문 조사 좀 하려 한다는 사람들에게 대한 대부분의 반응은 냉담하고 요즘은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가정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로 전도를 시도하기도 한다는 소문까지 있긴 하나 그들의 기본적인 전파는 '본인 의지' 에 맡긴다고 하는지라 그다지 신빙성은 없다.

## <아름다운 이야기>



어떤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나자 마지못해 생계를 위해 보험회사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집안에서 살림만 하던 여자가 그 험한 보험 일을 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딸만 아니면..... 하루에 수십 번도 더 하던 일을 그만 두고 싶을 정도로 힘겨운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거액의 보험을 들어준다는 어느 홀아버의 집에 방문했던 아주머니는 그만 큰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그녀는 근처에 있는 어느 한적한 공원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서러워서 자살까지 생각하며 한참을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앞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공원에서 커피와 음료수 등을 파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아주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주려고 하더니 갑자기 손수레에서 꿀차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따뜻한 물을 부어 몇 번 휘휘 젓더니 아주머니 손에 살며시 쥐어 주며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아주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기라도 한 듯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비록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그 따스한 미소는 그 아주머니에게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침까지 굶고 나와서 너무나도 춥고 배고팠던 아주머니는 할머니의 따뜻한 정에 깊이 감동하면서 눈물로 꿀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힘을 얻어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그 후 몇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공원에서 차를 팔고 돌아가시던 할머니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무사히 끝나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뺑소니 사고였기 때문에 할머니는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원하는 날이 가까워 오면서 할머니는 거액의 수술비와 병원비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딸이 퇴원수속을 위해 원무과로 찾아 갔을 때였습니다. 원무과 여직원은 할머니의 딸에게 병원비 계산서 대신 쪽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수술비 + 입원비 + 약값 + 기타비용 / 총액 = 꿀차 한 잔**

할머니의 딸이 놀라서 두 눈을 크게 뜨며 놀래자 서무과 여직원은 빙그레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5년 전.....

자살을 생각했다가 꿀차 한 잔에 다시 용기를 얻고 지금은 보험 왕이 된 어떤 여자분이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그 분이 바로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 겸손이란?

### 슈바이처의 겸손

20세기의 예수라고 불린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 검은 대륙의 랍바네대 병원에서 죽어 가는 생명들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도 부족 되어 모금하여서 병원유지비를 충당하였다. 한번은 모금을 하기 위하여 그의 고향에 돌아올 때 고향 역에 많은 친척친지와 동료들이 영접하러 나와 있었다.

열차가 도착했을 때 맞으러 나온 환영객들은 1등, 2등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맨 뒷간 3등 열차에서 걸어서 나오고 있었다. 영접객들은 달려가서 박사에게 왜 3등간에 타고 오셨느냐고 원망스럽게 물었다. 슈바이처 박사는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4등간이 있어야지요." 하고 더 낮은 자리가 없음을 아쉬워하는 태도였다. 겸손한 자가 존경을 받는다. 보화는 낮은데 묻어 있고 물은 낮은 골짜기를 흐른다.

### 조만식 장로의 겸손

주기철 목사님과 사제지간 되고 주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으로 시무 하시던 조만식 장로님이 있었다. 조 장로님은 주 목사님을 오산학교에서 교장으로 있을 때 가르쳤다. 그런데 어느 주일 날 조 장로님이 예배시간 늦게 손님과 이야기 하다가 교회에 들어오셨다. 주 전도사는 설교를 하다가 "조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오." 하고 호령을 했다.

이때 되지 못한 장로 같으면 그냥 나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자에 앉을 것이나 장로님은 그대로 서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나중에 "서 계시는 장로님 기도하십시오." 하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그 벌로 서서 예배를 드리신 장로님을 본 교우들은 큰 감동을 받고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하였다는 겸손하신 장로님이였다.



## 지금도 박해받는 1억명의 형제들



2016년 한 해 동안 약 9만명의 기독교인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살해당했다.

이는 6분마다 1명이 살해당했음을 의미한다고 이탈리아 종교연구그룹(CESNUK)이 밝혔다.

2015년에는 105,000명이 사망했는데, 기독교인 살해는 작년보다 근소하게 줄어들었다. 70%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였고 나머지 30%는 테러, 기독교 마을 파괴, 교회 폭탄테러로 일어났다.

시리아 알레포의 칼 데어 주교는 지난 5년동안 시리아의 기독교 인구는 15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기독교인 정부 관료에 반대하기 위해 20만명이 거리에서 집회를 가졌다. 전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은 약 1억명에 달하며 세계 종교 중 박해의 80%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박해하는 종교는 이슬람, 힌두교, 불교, 사회주의 국가다.

World Watch List는 2016년 박해 리스트를 발표하였다.

1위 : 북한 2위 : 이라크 3위 : 에리트레아 4위 : 아프가니스탄 5위 : 시리아 6위 : 파키스탄 7위 : 소말리아 8위 : 수단 9위 : 이란 10위 : 리비아  
미얀마에서 기독교인은 인구의 6%를 차지하지만, 미얀마 전역에서 정부와 불교 세력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박해가 있다. 누구든지 기독교인이 되면 매를 맞거나 핍박을 받고 마을에서 쫓겨나야 한다.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비아크 목사는 기독교 활동을 한 것 때문에 한 달 사이에 7번이나 경찰에 소환된 적도 있었다.

니제르의 진데르시에서 무슬림의 폭동으로 72교회가 파괴되고 10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당했다. IS에 의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자행되는 기독교인의 박해의 실상이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아일랜드 매카비 주교는 "기독교는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종교"라며 110개국에서 박해받고 있다고 전했다.

남한에서는 부요함 때문에 미지근함이 더해 가는 때에 북한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살고 있다. 중동에서는 고문과 살해, 터전과 집을 빼앗기고 있다. 영국 성공회 저스틴 웰비 대주교는 "박해받는 신자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증거를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고 전하며 박해받는 자들을 위로했다.

시리아의 대주교는 서방교회가 기독교인의 박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상황은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고 비극적이지만 세계교회는 침묵하고 관심도 없다. 부자는 그의 문간에 있는 나사로를 외면한 탓에 지옥에 들어갔는데 나사로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해있는 이들을 부자교회들은 외면하고 있다.

## <이달의 이슈>



우리나라는 AI(조류인플루엔자)와 때아닌 전쟁을 치루는 중이다. 땅에서 아무리 방역과 소독을 해도 날아다니는 철새까지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AI(조류인플루엔자)를 막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와중에 익산시는 작년 철새도래지에서 전북도 내에서 최초로 SI양성 판정을 받고 철통방역을 통해 전국 AI방역 롤 모델이 되기도 하였다.

AI(조류인플루엔자)는 조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전염 될 수 있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잘 익혀서 먹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계란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보니 계란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중이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집에서 계란을 두 개씩 먹는 사람을 금수저라고 이야기 할 만큼 계란의 가격이 많이 올라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란을 미국과 호주에서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고 대형 마트에서는 명절을 맞아 60여년 만에 계란 선물 세트를 출시 판매되었다.

### 조류인플루엔자(AI)의 인체 감염 시 주요 증상

- 38도 이상의 고열.
-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계통 이상 증세.
- 심하면 사망하며 치사율은 59%에 이룸.  
(전 세계 10개국에서 258명이 감염돼 153명 사망)

#### AI 예방법

- 닭이나 오리 고기는 익혀 먹는다.
- 달걀에 구멍을 내 빨아먹는 등 껍데기에 입을 대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발생 인근 지역에 있으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는다.



'파수대' 랑 '깨어라' 가 이들의 팸플릿이며 그 외에는 소책자라고 부르는 작은 책자들이 있다. 참고로 내용 자체는 "각종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른 신앙심으로 해결하자" 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들의 교회는 '여호와와 증인의 왕국 회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왕국회관" 이라는 이름만 보고 간혹 고깃집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집총 거부 때문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음에도 한국에서의 교세가 유난히 큰 데다 교인들의 면면도 표면적으로 보면 매우 평범하고 오히려 윤리적이고 올바른 사람들처럼 보인다. 표면적이 아니라 친구 사이가 되도 그 이상한 교리에 의거한 행동과 접할 일이 많지 않아서 같이 생활하기 전에는 잘 모른다. 신자들도 보수적이긴 하지만 특별히 어긋난 사람들은 아니다. 신도중에는 가족과 사별한 아픔을 겪은 사람이 많다는 것도 특징이다. 가족과 죽음으로 결별하는 아픔을 겪은 탓에 남은 가족과 영원히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희망이 이 종교에서 구원으로 내세우는 영생과 부합되기 때문이다. 가정방문을 하며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신도들을 보면 이런 사정이 꼭 하나 짬은 있다.

1992년 한국 원주시에서 여호와와 증인 신자인 아내에 불만을 품은 남자가 왕국회관에 불을 질러서 15명을 죽게 하고 25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사건이 터진 적이 있다. 이 범인은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고 지금까지 교도소에 복역 중에 결국 무기징역으로 여전히 수감 중인데 여호와와 증인 측에서 용서하면 가석방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호와와 증인 쪽에선 자기네들 신도가 되지 않는 이상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니 아마도 교도소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것 같다.

여담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여호와와 증인의 왕국 회관은 출입문을 두개로 만들도록 지시하고 있다. 무슨 일이 생겼을 시 대피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사건이 터졌을 당시 몇몇 언론에선 기독교 종파 싸움이라고 보도하는 바람에 개신교 측은 자기들이 방화를 시주했다는 오명을 듣는다며 지금까지도 아쉬워한다. 즉, 언론 보도도 이들을 기독교 한 종파로 오해하게 만든 셈이다.

## 성경 66권 영어 발음법

### < 구약 OLD TESTAMENT 올드 테스터먼트 ->

일반적으로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씀

장 Chapter 챕터	절 VERSE 버얼스
창세기 GENESIS 제네시스	출애굽기 EXODUS 엑서더스
레위기 LEVITICUS 리비티커스	민수기 NUMBERS 넘버스
신명기 DEUTERONOMY 듀터라너미	여호수아 JOSHUA 쟈슈아
사사기 JUDGES 저지스	룻(기) RUTH 루쓰
사무엘 상.하. I SAMUEL 쾰스트 First	
썰뮤얼 II SAMUEL 새컨 Second 썰뮤얼	
* 상, 하로 된 성경은 일반적으로 쾰스트 First, 새컨 Second로 읽지만 또는 One원 Two투로 읽기도 합니다.	
열왕기 상하 I, KINGS 쾰스트 킹스 II KINGS 새컨 킹스	
역대기 상하 I, II CHRONICLES 크라니클스	
에스라 EZRA 에즈라	느헤미야 NEHEMIAH 니어마이어
에스더 ESTHER 에스더	욥기 JOB 줌
시 편 PSALMS 썸스 (P와 L이 묵음)	잠언 PROVERBS 프라버브스
전도서 ECCLESIASTES 이클리시에스티스	아가 SONG OF SONGS 송 오브 송스
이사야 ISAIAH 아이제이어	예레미야 JEREMIAH 제러마이어
애 가 LAMENTATION (을)라멘테이션	에스겔 EZEKIEL 이지키얼
다니엘 DANIEL 대니얼	호세아 HOSEA 호지어, 호제아
요 엘 JOEL 조얼	아모스 AMOS 에이머스
오바댜 OBADIAH 오버다이어	요 나 JONAH 죠너
미 가 MICAH 마이카	나 훔 NAHUM 네이훔
하박국 HABAKKUK 해바커크	스바냐 ZEPHANIAH 제퍼나이어
학 개 HAGGAI 해가이	스가랴 ZECHARIAH 제커라이어
말라기 MALACHI 맬러카이	

### < 신약 NEW TESTAMENT 뉴 테스터먼트 ->

일반적으로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씀>

마 태 MATTHEW 매튜	마 가 MARK 마크
누 가 LUKE 루크	요 한 JOHN 존(眷)
사도행전 ACTS 액츠	로마서 ROMANS 로먼스
갈라디아서 GALATIANS 걸레이션스	에베소서 EPHESIANS 이퓌션스
빌립보서 PHILIPPIANS 필리피언스	골로새서 COLOSSIANS 콜라시안스
고린도전후서 I, II CORINTHIANS 코린티언스	
데살로니가 전 후서 I, II THESSALONIANS 데살로니아스	
디모테 전 후서 I, II TIMOTHY 티머시	
디도서 TITUS 타이터스	빌 레 몬 PHILEMON 필리먼, 꺾일리먼
히브리 HEBREWS 히브류스	야 고 보 JAMES 제임스
베드로 전 후서 I, II PETER 쾰스트 피터, 세컨(드) 피터	
요한 1,2,3 서 I, II, III JOHN 존(眷)	유다서 JUDE 쥬드
요한계시록 REVELATION 레벌레이션	



◎ 이달의 교회소식

1. 교회웃놀이 / 2월 5일 오후 2시~5시
2. 특별새벽기도회 / 2월 6일~11일, 성경통독
3. 학생회 헌신예배 / 2월 12일
4. 청년회 헌신예배 / 2월 19일
5. 제6차 성지순례 / 2월 21일~3월 1일, 이스라엘~요르단

◎ 공지사항

1. 생활실천표어 / 네 소원이 무엇이냐?

◎ 이달의 교우소식

1. 여행 / 이종희집사 부부 - 2월 4일~12일, 스페인
2. 장막이전 / 이영길장로 가정 - 2월 11일
3. 졸업식 / 중3 - 백장미 한예성, 고3 - 강예원 김민성 김상운 이부희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권찰  
 송미숙 권찰  
 조은희 권찰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

# 시사용어 Briefing

엔지족 NG族

‘아니다’의 NO와 졸업을 뜻하는 Graduation을 합성한 단어로 취업준비, 고시준비 등으로 인해 졸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또는 졸업 유예족이라고도 한다.

프레너미 Frienemy

친구(Friend)와 적(Enemy)의 합성어로 경쟁하면서도 동시에 이해관계가 얽혀 전략적으로 협력관계에 있는 사이. 구글의 OS안드로이드를 상용하는 삼성,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구글이 해당 될 수 있다.

경제고통지수 Economic Misery Index

한 나라의 국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수. 실업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더해 산출하며, 이 지수가 높을수록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큼을 의미한다.

베블런 효과 Veblen Effect

주로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가격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주로 사치품 시장에서 볼 수 있다.

빅 배스 Big Bath

회사에서 경영진을 교체할 때 부실한 성적을 한 회계연도에 전부 반영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로 신입 CEO가 전임자의 손실을 털고 자신의 공적을 부각시킬 때 쓴다.

신고립주의 Neoisolationism

미국의 외교정책을 일컬으며 자국의 이익과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국제정치에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대외적인 간섭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챗봇 Chatbot

채팅(Chat)과 로봇(Robot)의 합성어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아이폰의 시리(Siri)도 챗봇의 일종이다.

카오스이론 Chaos Theory

겉보기에는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무질서해 보이는 현상도 알고 보면 나름의 질서가 존재한다는 이론. 안정적이면서도 불안정하고, 혹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현상을 설명한다.

## <이달의 제철음식>

2월

우영

1,2,3월

바람이 들지 않고 너무 건조하지 않는 것, 껍질에 흠이 없고 매끈

다덕

1,2,3,4월

껍이 깊고 속이 희고 골게 지탄 것으로 골을 수록 맛과 효능이

딸기

1,2,3,4,5월

꼭지가 마르지 않고 진한 푸른색을 띠는 것이 좋다. 과육의 붉은

한라봉

12,1,2,3월

한라봉은 껍질이 얇은것이 당도가 높다. 껍질이 어두

꼬막

11,12,1,2,3월

껍질이 깨지지 않고, 물갈 무늬가 선명하고, 깨끗한것을 고른다.

아귀

12,1,2월

살이 단단하고 물의 색이 검으며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고른다

바지락

2,3,4월

껍질이 깨지지 않고 윤기가 나는 것이 좋다

도마

11,12,1,2,3월

몸은 길둥글고 납작하며 몸빛은 황색, 홍색, 회색 등이다. 손으로

삼치

10,11,12,1,2월

살이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은 피하고 배와 물 전체가 단단

날씨가 추운 겨울엔 대체로 활동량도 적다.

겨울과 봄 사이인 2월은 일교차가 심해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더욱 높다.

2월 제철음식인 **귤**은 비타민C 등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이다.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면 감기 예방과 기관지 질환에 도움이 된다. 껍질 채 섭취하면 더욱 좋다. **귤껍질**을 차로 끓여 먹으면 더 좋지만, 껍질에 묻어 있을 농약 등이 걱정된다면 굵은 소금이나 베이킹파우더를 이용하면 된다.

**유자**도 2월 제철음식이다.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유자는 레몬의 3배에 해당하는 비타민C를 포함하고 있다. 유자의 비타민C 함량은 바나나보다 10배 더 많다. 피로 회복에 좋은 구연산도 풍부해 겨울철 음식으로 적절하다.

또 다른 2월 제철음식 **오징어**에는 다량의 타우린이 들어 있다. 타우린은 항암 효과가 우수하고 피로회복에 좋다. 또 오징어에는 불포화지방산인 EPA, DHA도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뇌 기능을 증진시킨다. 학습 및 기억능력을 향상해 청소년과 노약자들에게 제격이다.

## 믿음의 눈으로

김동연 안수집사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믿음  
 생각 할 수 없는 것을  
 생각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뵈온다는 흠의 고백처럼  
 이제는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체험적인 믿음이길 원합니다.

순중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2017년 한해도  
 희망과 사랑의 아름다운 꿈을 꾸며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여  
 지경을 넓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후14:4)